

坤輿全圖에 담긴 思想과 文獻的 價値考察

이 두 영
(사서주사)

<목 차>

- | | |
|-------------------|---------------------|
| 1. 緒論 | 3. 坤輿全圖의 內容과 特徵 |
| 2. 坤輿全圖의 製作背景 | 4. 坤輿全圖의 傳來過程 |
| 1) 페르비스트의 生涯 | 5. 坤輿全圖 所藏處別 板本 對照表 |
| 2) 坤輿全圖 製作의 動機 | 6. 坤輿全圖의 文獻的 價値(結論) |
| 3) 當時 地圖製作에 담긴 思想 | |

1. 緒論

地圖는 地表空間을 表現한 圖形이다. 산맥, 하천, 호수, 섬 등의 自然的 要素뿐만 아니라 道路, 聚落 등과 같은 人文的 要素까지도 地圖를 통해서 쉽게 把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는 단순한 空間表象의 圖形이라는 定義를 초월하여 인간이 對象空間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集約한 圖形이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構想·企劃하고 그것을 行動으로 옮기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資料이다(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12-13).

本館에 所藏(貴軸 4709-88c 1-8 等)하고 있는 古地圖『坤輿全圖』도 당시 空間에 대한 지식의 總體가 表現된 것으로 當代 空間에 대한 認識水準, 科學技術의 水準과 그 당시 사람들이 世界를 構成하고 理解하는 方式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資料라고 思料된다.

2. 坤輿全圖의 製作背景

1) 페르비스트의 生涯

페르비스트(Verbiest, Ferdinand. 중국명 : 南懷仁 ; 1623~1688)는 벨기에 출신 제스이트회(耶蘇敎會) 선교사로서 1658년 마카오에 상륙하여 布敎에 專念하다가 1660년 北京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들어온 아담 샬(Adam Schall, 湯若望, 1592~1666)의 宣敎事業을 繼承하는 한편 清朝에 임용되어 평생을 天文, 曆法 등 西洋科學의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康熙帝의 西洋學 顧問으로서 信任을 받아 欽天監 벼슬을 역임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672년에 여러 그림이 같이 수록된 世界地理 書인 『坤輿圖說』을 編刊하였고 1674년에는 北京에서 『坤輿全圖』를 板刻 發行했다.

2) 坤輿全圖 製作의 動機

16세기 후반 이후 中國으로 進出한 西洋의 예수회 소속 宣敎師들은 天主教뿐만 아니라 天文·曆法 등과 같은 서양 르네상스 時代의 最新 科學文明을 傳播하는 重要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天主教의 傳道를 위해서는 기존의 傳統的인 中國 중심의 世界觀에 變化가 要求되었는데, 西歐式 世界地圖는 中華的 世界觀을 變化시키는 重要한 手段¹⁾으로 적극 活用되었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는 1584년 漢譯의 西歐式 世界地圖를 製作한 이래, 1602년 北京板 『坤輿萬國圖』를 비롯하여 10여 板本 이상의 世界地圖를 製作하였다. 또한 1623년에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 1582~1649)가 著述한 『職方外紀』에는 萬國全圖가 수록되었고, 페르비스트는 1672년 『坤輿圖說』을 編刊한데 이어 여기서 考察하려는 『坤輿全圖』를 1674년 에 兩半球圖로 製作하였다. 이 地圖들은 中國에 온 宣敎師들에 의해 製作된 가장 代表的인 地圖로서 朝鮮에 전해져 傳統的인 世界觀을 變化시키는데 많은 影響을 끼쳤다(국립중앙박물관, “고

1) 세계지도는 당시 중국이 우리의 신성한 믿음의 모든 것에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가 넓고 중국은 그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지한 사람은 지도를 비웃었고, 현명한 사람은 경위선 눈금의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서, 우리의 땅이 그들 왕조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러 왔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Samuel Y. Edgerton, Jr., 吳尙學譯, 1987, "From Mental Matrix to Mappamundi to Christian Empire : the Heritage of Ptolemaic Cartography in the Renaissance". In Art and cartography, David Woodward eds., pp.25-26).

려·조선의 대외교류”, 2002).

3) 當時 地圖製作에 담긴 思想

우리나라에서도 古代로부터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圖像으로 表現해온 사실이 現存하는 遺物, 遺蹟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圖像에는 中國을 통해 들어온 天地觀, 地理的 世界觀이 기존의 土着的인 요소들과 융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 고대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天地觀이나 地理的 世界觀 등이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로로 韓半島에 流入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樂浪時代의 古墳에서 出土된 石板에 天圓地方²⁾의 天地觀을 바탕으로 한 北斗七星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던 사실로³⁾ 볼 때 三國時代 以前에 이미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天圓地方의 관념은 한반도에서도 대표적인 天地觀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高句麗의 古墳 壁畫에서도 이러한 痕迹을 볼 수 있으며, 新羅 瞻星臺의 모습도 天圓地方을 象徵하는 것으로 理解되기도 했다.⁴⁾ 天圓地方의 관념은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天地에 대한 가장 常識的이면서 일반적인 思考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思考는 각종의 文學, 藝術作品에서도 표현되고 日常生活의 道具에 반영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現在도 행해지고 있는 傳統的인 민속놀이인 윷놀이는 天圓地方의 전통적인 天地觀을 바탕으로 天體의 運行에 따른 季節의 변화를 놀이로서 엮은 것이다.

天圓地方의 天地觀과 더불어 朝鮮時代 地理的 世界에 대한 대표적인 思考는 中國을 통해 流入된 中華觀과 文化的 中華觀인 華夷觀을 包括하는 것으로서 儒敎的 思考의 土臺를 이룬다. 朝鮮時代に 접어들어 儒敎的 原理가 사회의 全分野를 支配하게 됨에 따라 中華的 世界認識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地位를 확보하게 되었다. 抑佛政策으로 인해 佛敎的 世界觀은 더 이상 前面에 부각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2) ①“천원지방”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찰을 거치면서 하나의 관념으로 형성되었다. 圓은 움직이는 하늘이고 方은 정지해 있는 땅을 상징하는데, 北極星을 中心으로 하는 恒星의 日周運動을 보고 天圓이라 생각했고 태양 운행의 계절에 의한 변화를 보고 地方이라 했던 것이다(高橋正, 1995, “中國人的世界觀と地圖”, 『月刊しにか』 6-2, p.24).

②“천원지방”은 천지의 형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형이상학적 성격을 지니는 음양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金一權, 1999,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

3) W. C. Rufus, 1936, “Korean Astronom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Vol.26, pp.3-4.

4) 全相運, 1964, “三國 및 統一新羅의 天文儀器”, [古文化] 3.

이 시기에 製作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세계지도들은 天圓地方의 天地觀과 中華의 世界認識(職方世界)⁵⁾에 基礎하여 製作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7세기 이후 서양의 地理知識이 傳來되기 전까지 持續되었다(吳尙學, “朝鮮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 認識”,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引用).

그러나 17세기 이후 『坤輿全圖』 등 西歐式 世界地圖를 통하여 더 넓은 세계를 天下로 認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世界の 中心에 位置한 中國과 그 周圍의 異域으로 構成되는 地理的 中華觀을 부정하게 되었다. 中國 以外에 더 넓은 世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상당한 수준의 文化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認識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傳統的인 思考에 의한 地圖가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3. 坤輿全圖의 內容과 特徵

《곤여전도》는 視點을 赤道上에 둔 平射圖法⁶⁾으로 東西 兩半球를 分離하여 그린 것이다. 이 地圖의 東半球에는 亞細亞, 歐邏巴, 利未亞, 西半球에는 南·北亞墨利加가 그려져 있고 墨瓦蠟尼加(남방대륙)는 兩半球에 걸쳐 있다. 子午線⁷⁾은 兩半球가 다 9개씩 그려져 있고 緯線은 赤道와 南北回歸線 및 極圈이 그어져 있을 뿐이다.

《곤여전도》는 1569년판 메르카토르의 수정 世界地圖를 基礎로 製作된 것으로 보는데, 地圖上의 地名 등은 마테오 리치의 世界地圖를 주로 따랐다.⁸⁾

《곤여전도》는 저자가 앞서 著述한 『곤여도설』을 世界地圖와 結合한 것이다. 1672년 저술한 『곤여도설』에는 알레니의 『職方外紀』와는 달리 地圖가 收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 地域을 理解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던 것인데 이런 問題를 解

5) 職方이란 『周禮』에 나오는 職方氏라는 官職名에서 緣由하는 말인데, 직방씨는 天下九州의 地圖와 四方에서의 貢物을 管掌하는 직책이었다. 후대의 明, 清代에도 職方司라는 官청을 두어 天下의 地圖와 地理書를 맡아보고 邊疆地方의 地圖製作을 管掌하였다. 『職方世界』는 中華중심의 세계의식에서 中國과 그와 조공관계가 있는 세계를 뜻하는 용어이다.(李元淳, 1992, “崔漢綺의 世界地理認識의 歷史性: 惠岡學의 地理學的 側面”, 『문화역사지리』 4호, p.18).

職方世界 중심의 世界地圖의 例: 中國 明代에 製作된 《古今形勝地圖》, 《皇明職方地圖》.

6) 透視圖法의 한 가지. 地球 直徑의 한 점을 視點으로 假定하여, 그 반대측의 半球를 平面상에 나타내어 經緯線을 投射하는 방법. 중앙부가 약간 작게 나타남(李熙昇,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4).

7) 天頂과 天底을 통하는 무수한 大圓. 곧 垂直圈중 天球의 兩極을 통과하는 것. 이 자오선과 觀測地點을 포함하는 平面이 地表面과 교차하는 線을 地球의 자오선이라 하는데, 南北을 가리킴.

8) 田保橋潔, 1932, “朝鮮測地史上의 一業績”, 『歷史地理』 60-6, pp.27-28.

決하기 위해 大形の 世界地圖를 製作하고 『곤여도설』에 收錄된 內容들을 地圖에 收錄했던 것으로 보인다.

地圖의 餘白에 收錄된 注記들은 『곤여도설』에 收錄된 內容들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地圓』, 『地體之圓』, 『地震』, 『海之潮汐』, 『海水之動』, 『風』, 『氣行』, 『江河』, 『山岳』, 『人物』 등과 각 大陸別로도 『곤여도설』의 뒤편에 수록된 各種 動物이나 船舶 그림도 大陸과 海洋에 그려져 있다.

이처럼 《곤여전도》에 收錄된 內容들은 마테오 리치의 《坤輿萬國全圖》에 비해 地文學的인 內容들을 많이 收錄하고 있다. 리치의 地圖에 收錄된 주기에는 宇宙에서 地球의 位置, 일월의 운행, 일월식의 운행, 일월식, 경위도, 일출입시각 등 曆法 製作에 基礎가 되는 天文學的 知識을 망라하고 있는데, 페르비스트의 地圖에서는 地球 表面의 구체적인 자연현상과 지리적 사실에 보다 重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특수 上流知識層을 相對로 編輯된 《곤여만국전도》와 달리 좀더 일반사람들의 관심사에 焦點을 두고 地圖를 製作한데서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리치의 世界地圖는 高位官吏와 皇帝의 관심을 끌기 위해 曆法の 바탕이 되는 天文學的 知識에 더 置重했던 반면,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는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刺戟할 수 있는 地理知識과 關聯된 內容들이 많다.

1767년에는 브노아(Michel Benoit, 蔣友仁, 1715-1777)의 『坤輿全圖』가 判각되었는데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처럼 兩半球의 형식을 띠고 있다. 브노아는 1745년 北京에 到着하여 乾隆帝 下에서 近代的 測量方法에 의한 《皇輿全圖》 製作에 參與하기도 했다. 브노아의 《곤여전도》가 지니는 地圖學史에서의 影響力은 마테오리치나 페르비스트의 地圖에 비해 微弱하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이 처음으로 紹介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指摘되고 있다.⁹⁾ 地動說은 종래 예수회 宣教師들 사이에서도 禁忌時 되었는데, 1758년 이것이 解禁되어 《곤여전도》에도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地圖는 현재 中國 第一歷史檔案館에 所藏되어 있다.

9) 海野一隆, 1968, “湯若望および蔣友仁の世界圖について”, 『人文地理學の諸問題：小牧實繁先生古稀記念論文集』, 大明堂, pp.83-93.

4. 坤輿全圖의 傳來過程

中國에서 西洋 宣教師들에 의해 製作, 刊行된 많은 西學書와 世界地圖는 대부분 燕行使臣에 의해 朝鮮으로 流入되었다. 그러나 坤輿全圖가 어떠한 經路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상세한 記錄이 남아 있지 않지만, 1776년 黃胤錫¹⁰⁾은 當代 天文學으로 명성을 날리던 洪大容¹¹⁾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洪대용이 所藏하고 있던 『曆象攷成』, 『數理精蘊』등의 科學書와 南懷仁이 增修한 康熙 甲寅年(1674)의 『坤輿全圖』8疊을 閱覽했다고 한다.¹²⁾ 이를 통해 볼 때 남회인이 간행한 “坤輿全圖”도 이미 朝鮮社會로 流入되어 書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閱覽되고 있었다고 推測할 수 있다.

<坤輿全圖>는 세로 146cm, 가로 400cm에 이르는 大型 板本으로서 個人的으로 板刻하는 것은 不可能하고 이를 筆寫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7, 18세기 朝鮮에서 <곤여전도>의 製作과 관련된 記錄은 發見되지 않고 있다. <곤여전도>를 연구했던 日本人 田保橋潔은 日帝時期에 彩色筆寫本 <곤여전도>가 朝鮮에 存在하고 있었음을 報告하고 있으며¹³⁾, 이후 <곤여전도>는 1860년에 이르러야 國家的 次元에서 다시 刊行되어 널리 普及되게 되었다.

10) 1729년(英祖 5) 己酉 4月 8日에 興德縣 龜壽洞(現 高敞郡 星內面 槽洞)에서 晚隱 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791년(正祖 15) 辛亥 4月 17日까지 生存. 형이 夭死함으로써 長子の 所任을 다하였다. 字는 永叟이고, 號는 주로 頤齋로 불렸으나 이 밖에 西溟散人, 雲浦主人, 越松外史, 純陽子, 逍遙散人, 逍遙主人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本貫은 平海이다.

황윤석은 조선 英·正祖 年間に 金堉과 柳馨遠이 실학의 터를 닦은 전라도 땅에서, 申景濬, 魏伯珪와 더불어 實學의 功績을 쌓아, 空理無用에 빠졌던 儒學의 實用的 價値를 發揚한 實學派 碩學의 한 사람이다(李康五, 1994, “頤齋亂藁 解題”, 『頤齋亂藁 第一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47 所收).

11) 1731(生)-1783(歿).

12) 是日 觀德保所藏曆象攷成上下後篇及數理精蘊并八線對數闡微表 又觀泰西坤輿全圖 康熙甲寅西土南懷仁所增修者 共八疊 爲圖者 二 各列赤道 半天爲一圖…(黃胤錫, 『頤齋亂藁』 권22, 丙申 八月初九日戊申)

13) 田保橋潔, 1932, 앞의 논문, p.26.

5. 坤輿全圖 所藏處別 板本 對照表

소장 처별	청구기호	규격(cm) (등록번호 : 세로×가로)	판본	제작 시기	구성	기 타
서울 대중 양도 서관	貴軸 4709-88C 1-8	146×400 148360_1 : 183.8× 59.3(173.3×50.3) 148361_2[5] : 184.2×59.4(173.4×57.7) 148362_3 : 185.5×59.7(150×51) 148363_4 : 184.6×59.9(163.2×51) 148364_5 : 185.2×59.4(174×57.5) 148365_6 : 184.4×59.5(149.8×51) 148366_7 : 184.9×59.5(174×50.8) 148367_8 : 184.8×59.8(173.3×50)		1674	8軸	148360_1 : 四元行之序並其形 ◎地球南北 兩極必對天上南北兩極不離天之中心◎地圓 ◎地體之圓 148361_2[5] : 雨雲◎海舶◎或問潮汐之爲 ☆康熙甲寅歲日躔蠟訾之次 148362_3 : 農地◎西北諸蠻方 ◇[坤輿]* 괄호의 크기는 原圖의 상하 9번 중심을 측 정함 148363_4 : 風◎海族◎海之潮汐 148364_5 : ★加爾本大利亞 148365_6 : ◇[全圖] 148366_7 : 氣行◎利未亞總說◎歐羅巴總說 ☆治理曆法極西南懷仁立法 ◎海水之動 148367_8 : 地震◎人物◎江河◎山岳
	軸 4709-88A 1-8	81942_1 : 174.1×51.5 81943_2 : 168×52.25 81944_3 : 171.1×52.6 81945_4 : 173.1×52.3 81946_5 : 172.8×52.6 81947_6 : 173.1×52.1 81948_7 : 173.1×52.3 81949_8 : 173.3×52.3	廣東板 重刊	1856	8軸	81942_1 : 四元行之序並其形 ◎地球南北 兩極必對天上南北兩極不離天之中心◎地圓 ◎地體之圓 81943_2 : 雨雲◎海舶◎或問潮汐之爲☆康 熙甲寅歲日躔蠟訾之次咸豐丙辰降婁廣東省 重刊 81948_7 : 氣行 ☆ 治理曆法極西南懷仁立 法 ◎歐羅巴總說 ◎利未亞總說◎海水之動 81949_8 : 地震◎人物◎江河◎山岳 ☆ 上·下端 腐蝕

*괄호() 내 숫자는 실물크기

소장 처별	청구기호	규격(cm) (등록번호 : 세로×가로)	판본	제작 시기	구 성	기타
서울 대 중 앙 도 서관	大 4709 88A 複	全圖크기 : 188497 : 168×398.4 ①168×47.9 ②168×50.4 ③168×50.5 ④168×50.4 ⑤168×50.5 ⑥168×50.5 ⑦168×50.7 ⑧168×47.5	廣東板 重刊	1856	8幅 屏風	①四元行之序並其形◎地球南北兩極必對天上 南北兩極不離天之中心◎地園◎地體之園 ②氣行◎利未亞總說◎歐羅巴總說☆治理曆法 極西南懷仁立法◎海水之動③[全圖]④加爾本 大利亞 ⑤風◎海族◎海之潮汐 ⑥農地◎西北諸蠻方[坤輿] ⑦雨雲◎海舶◎或問潮汐之爲☆康熙甲寅歲日 躔娥訾之次 咸豐丙辰降婁廣東省重刊 ⑧地震◎人物◎江河◎山岳
	軸 4709-88 1-8	76091_8[1] : 3×54 76085_2 : 153.4×54 76086_3 : 149.8×54 76087_4 : 149.9×54.3 76088_5 : 152.8×53.4 76089_6 : 152.9×54.1 76090_7 : 153.3×54.1 76084_1[8] : 152.3×53.8	海東 重刊本	1860	8軸	76091_8[1] : 地震◎人物◎江河◎山岳 76085_2 : 雨雲◎海舶◎或問潮汐之爲☆治理曆 法極西南懷仁立法 76086_3 : 農地◎西北諸蠻方 76087_4 : 風◎海族◎海之潮汐[輿] 76088_5 : 利未亞洲西 ★ 加爾本大利亞 76090_7 : 氣行◎利未亞總說◎海水之動 ☆ 咸 豐庚申降婁海東重刊 76084_1[8] : 四元行之序並其形 ◎地球南北兩 極必對天上南北兩極不離天之中心◎地園◎地 體之園
	軸卷 4709-88b 1-6	150930_1 : 165×54.6 150931_2 : 165×52.7 150932_3 : 164.8×55.4 150933_4 : 165×53.1 150934_5 : 165×51.9(144.6×50.8) 150935_6 : 164.9×54.8(141×50)	海東重刊 板後副本	1911	6軸	150930_1 : [坤]◎雨雲◎海舶☆治理曆法極西 南懷仁立法◎或問潮汐之爲 150931_2 : 農地 ◎西北諸蠻方 150932_3 : 風 [輿] ◎海族◎海之潮汐 150933_4 : [全] ★ 加爾本大利亞◎利未亞洲西 150935_6 : 氣行 [圖] ◎歐羅巴總說◎利未亞總 說◎海水之動 ☆ 咸豐庚申降婁海東重刊

소장 처별	청구기호	규격(cm) (등록번호 : 세로×가로)	판 본	제작 시기	구성	기 타
규 장 각	奎 2667861~6 (M/F82-35- 67-G)	全圖크기 : 146.5×58.3 cm. ①160×54(139.8×50) ②159.3×54(144×50.5) ③162.4×54.5(143.5×50.5) ④160.4×54(137×50.3) ⑤161.5×54(144×50.5) ⑥160×53.8(139.5×50.5)	海東重刊	1860	6枚	①[坤]○雨雲○海船○或問潮汐之爲☆治理 曆法極西南懷仁立法 ③西北諸蠻方 ④風[輿]○海族○海之潮汐 ⑥氣行[圖]○歐羅巴總說○利未亞總說☆咸 豐庚申降婁海東重刊○海水之動 ◎第3 幅缺[全]
	奎 2668941~4 (M/F82-35- 68-S)	全圖크기 : 146.5×58.3 cm. ①破損 : 크기측정불능 ②149.7×59.8(143.8×50.2) ③149.8×59.5(139×50.3) ④③과 同一複本	海東重刊	1860	4枚	①★ 加爾本大利亞○利未亞洲西 ②農地○西北諸蠻方 ③氣行○利未亞總說○歐羅巴總說○海水之 動 ☆ 咸豐庚申降婁海東重刊 ◎1, 2, 5幅 缺
	假2431~3	①154×51.3 ②153.5×52 ③144.7×52	海東重刊 (木板)	1860	3張 (각8個)	①[全] 沸溢然 ②咸豐庚申降婁海東重刊[圖]○氣行 ③冬至日止二時○風衝至海濱 ※木板 8個로 1個 幅을 構成됨 ◎ 3幅 缺
장 서 각	K2-4959	41023001 : 180.8×57.5		1860	假束裝, 1束 (6葉)	紙質 : 綿紙
고 려 대 도 서 관	대학원 B10 A201	465028446, 465028447 : 162×150	木板本	1860	2枚	①古大B-10-A-51 ②B-10-A-73 이상 1-2는 미확인
	육당 B10A511-2	全圖크기 : 154.5×147.5 463018135, 463018136 : 39.3×29.7	木板本	1860	2帖	

승실대기독교박물관(1674년판), 국립중앙박물관(M-188,189)의 所藏資料 調査 未備.

6. 坤輿全圖의 文獻的 價値(結論)

西歐式 世界地圖가 東洋에 紹介되기 始作한 것은 마테오 리치가 天主教의 宣敎事

業을 위해서 당시 東洋에서 風靡하던 中華的 世界觀을 打破하기 위한 手段으로 1584년 漢譯 西歐式 世界地圖를 製作 傳播하면서 많은 學者들에게 다음과 같은 影響을 준 것을 알게되었다.

가. 西歐式 世界地圖가 보여주는 世界는 既存의 中華的 世界 認識에 基礎한 世界地圖와는 比較할 수 없는 광대함을 깨닫게 했다. 즉 中國 中心 世界觀을 克服하여 五大洲說을 受容하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¹⁴⁾

나. 傳統的인 <天圓地方>의 天地觀을 克服하여 地球具體說로의 수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¹⁵⁾

이와 같은 一連의 思想들은 또한 朝鮮社會에도 燕行 使臣과 高官들에 의하여 西洋式 世界地圖와 曆法 등이 流入되면서 實學派들에 의하여 西洋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지니도록 하는데 많은 影響을 주어 서서히 西學의 꽃을 피우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이 地圖는 東西兩半球 世界地圖로 東·西半球가 각각 4幅에 그려진 8幅 地圖이다. 1幅의 크기는 세로 146.5cm 가로 58.3cm이다. 한편 이 地圖는 木板이기 때문에 比較的 많이 남아 있지만 初期의 地圖는 稀貴하여 本館 所藏 <곤여전도>는 保存의 價値가 높다고 思料된다.

14) 洪大容, 『湛軒書』 內集 3권, 補遺, 『鑿山問答』

15) 구만옥, 2000, “朝鮮後期 ‘地球’說 受容의 思想史的 的의”,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해안, pp.728-729, pp.745-746.

◆ 참고문헌 ◆

- 吳尙學, “朝鮮時代의 世界地圖와 世界 認識”,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吳尙學,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金良善, 1961, “明末清初 耶蘇會宣教師들이 製作한 世界地圖와 그 韓國文化史上에 미친 影響”, 崇大 6호.
- 金良善, 1961, “明末清初 耶蘇會宣教師들이 製作한 世界地圖”, [梅山國學散稿], 崇田 大學校博物館.
- 盧禎植, 1969, “西洋地理學의 東漸 : 특히 韓國에의 世界地圖 傳來와 그 影響을 中心으로”, [大邱教大論文集] 제5집, pp.225-255.
- 李 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 高僑正, 1995, “混一疆里歷代國都之圖研究小史,” 『문화역사지리』 7호,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 黃胤錫, 1998, 『頤齋亂藁』: 韓國學資料叢書 三,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국립중앙박물관, 2002, “고려·조선의 대외교류”, 통천문화사.
- 田保橋潔, 1932, “朝鮮測地史上の 一業績”, [歷史地理] 60-6.
- 秋岡武次郎, 1938, “南懷仁著の坤輿圖說に就りて”, [地理教育] 29-1號.
- 秋岡武次郎, 1933, “安靖福筆地球儀用世界地圖”, [歷史地理] 61-2號.